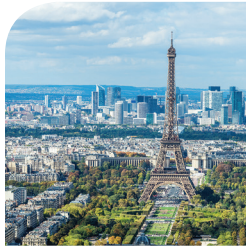


# 파리의 도시외교



세계도시 파리의  
도시외교 특성 연구



도시외교 시리즈 ⑨

# 파리의 도시외교

세계도시 파리의  
도시외교 특성 연구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파리의 도시외교

세계도시 파리의 도시외교 특성 연구

## CONTENTS

요약 .....	2
Ⅰ 서론 .....	3
Ⅱ 국제적 행위자 파리 .....	9
Ⅲ 문화수도 파리의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 .....	13
Ⅳ 국제연대를 위한 파리의 지원 .....	16
Ⅴ 파리협정과 환경외교 .....	20
Ⅵ 결론 .....	23

# 파리의 도시외교

## 세계도시 파리의 도시외교 특성 연구

### 요약

본 연구는 문화외교, 국제개발협력, 환경외교를 중심으로 파리의 적극적인 도시외교 행보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국가가 배타적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국가지만 지방분권화 경향 속에서 도시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2003년 헌법 제 1조의 개정으로 프랑스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세계도시(Ville-Monde) 파리는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파리는 해외도시와의 단순교류(자매도시, 우호협력협약)로부터 출발하여 국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 주체로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2008년 파리시장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은 중앙정부의 대중국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도시외교 행위자가 중앙정부와 차별되는 독자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사례는 파리의 일회적 파격 행보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민국가의 지도력 공백을 채움으로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한층 더 나아가 지방정부 나름의 독자적 정체성 확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파리, 도시외교, 문화외교, 국제개발협력, 환경외교

## I. 서론

도시가 국제 수준의 관계망에 참여하고 외교행위자로서 기능하면서 도시 외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외교는 해외도시와의 단순교류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국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반데어플루짐과 멜리센(Van der Pluijm and Melissen)에 의하면 도시외교란 “도시 혹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그들을 대표하고 서로 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행위자 간 관계를 맺는 제도와 절차(... defined as the institutions and processes by which cities, or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engage in relations with actors on an international stage with the aim of representing themselves and their interests to one another)”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도시외교라는 용어는 여전히 생소하며 국제관계학에서 도시외교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피터 홀(Peter Hall)은<sup>2)</sup> 정치·경제적으로 힘 있는 도시를 ‘세계도시(World City)’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하위단위 행위자가 국경 너머 다른 행위자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싸센(Sassen)<sup>3)</sup>이 글로벌 시티(Global city)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카스텔스(Castells)는 중개 장치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직접 연결되는 세계화의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국민국가 하위 층위에 있는 행위자에 주목한 바 있다.<sup>4)</sup> 이처럼 도시 혹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국제관계와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5)</sup> 도시와 지방

1) Rogier Van der Pluijm and Jan Melissen,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2007), p. 6.

2) Peter Hall, *The World Cities*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66).

3)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4)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1 (Oxford: Blackwell, 1996).

5) Saskia Sassen, “Local Actors in Global Politics,” *Current Sociology*, vol. 52. No. 4 (July 2004). Rogier Van der Pluijm and Jan Melissen,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역량을 확보하려는 경향의 중심에는 세계화와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가 있다. 경제 세계화로 인해 탈 영토화된 국경 간 네트워크에서 도시가 중심역할을 맡게 되었으며<sup>6)</sup>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가 국제 수준의 관계망에 참여하면서 외교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국가로 오랫동안 국가가 배타적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sup>7)</sup>에 도시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것은 지방분권화(décentralisation)<sup>8)</sup>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2년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일명 Loi Defferre)을 계기로 분권화(décentralisation)와 분산화(déconcentration)가 진행되었다.<sup>9)</sup> 2003년 3월 28일 채택된 “공화국 분권화 관련 헌법(Loi constitutionnelle n. 2003-276 relative a l'organisation décentralisée de la République)”은 국가조직이 분권화(décentralisée)되었음을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sup>10)</sup> 헌법 제 1조의 개정으로 프랑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었고 이로써 지방정부는 보다 주체적으로 국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4,700 지방자치단체는 134개국에 걸친 8,150 국외 파트너와 10,44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1)</sup> 10,440 프로젝트 중에서 파리는 54개국의 지방정부와 456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 프랑스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Politics*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2007); Benjamin Leffel and Michele Acuto, “City Diplomacy in the age of Brexit and Trump,” *Public Diplomacy*, 18, 2017, pp. 9-14; Tassilo Herrschel and Peter Newman, *Cities as International Actors* (Palgrave Macmillan, 2017).

6) Sassen (2004).

7) Arthur Edwards and Peter Hupe, “France: a Strong State, Towards a Stronger Local Democracy?” in H. Daemen & L. Schaap. *Citizen and City. Developments in fifteen local democracies in Europe* (Delft: Eburon, 2000), p. 132.

8)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보다는 지방분권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9) 전훈,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18), pp. 58-60을 참조할 수 있다.

10) 프랑스 헌법 1조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단일 국가로서 분할될 수 없으며 정교가 분리된 사회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과 종교와 출신에 차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프랑스의 국가 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 앞의 이탤릭체로 쓴 부분이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추가된 문장이다.

11) Pierre Pougau, “Guide opérationnel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2020), p. 7.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12)</sup> 프랑스의 수도이며 프랑스에서 인구 200만이 넘는 유일한 도시인 파리는 코뮌(commune)으로서의 지위와 데파르트망(département)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 특수한 자치단체이다. 파리의 문화·역사 유산은 세계 곳곳에서 여행객을 불러 모으는 각광받는 여행지다. 세계도시 파리(Paris, ville-monde)라고 불리우며 세계의 예술과 문화의 수도라 자임할 만큼 정치, 사회, 문화적 위상을 지닌 도시 파리는 프랑스의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인 정책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한다.

파리시에서 국제교류를<sup>13)</sup>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파리시장이다. 파리시청은 국민방문 등 외국 국가원수와 유명인사 등의 의전 방문 장소로 파리시장은 이들과의 환담 기회를 갖게 된다.<sup>14)</sup> 파리시장은 37명의 부시장(adjoint à la maire)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조직하는데 이 중에서 국제문제 및 프랑코포니 담당 부시장(adjoint à la maire de Paris en charg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de la Francophonie)이 프랑코포니 지역을 포함한 국제 문제를 담당하며 지방분권협력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NCD)에도 참여한다.<sup>15)</sup> 또한 파리는 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산하에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전담 국제관계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aux relations internationales: DGRI)을 두고 있다.<sup>16)</sup>

파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외관계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처와의 조율 및 협력은 필수적이다. 관련 중앙부처의 대표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대외활동 담당국(Délégation pour l'action extérieu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ECT)과 CNCD가 있다. 1992년에 설립된 CNCD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중앙정부 부처 관계자가 동수로 모이는 장으로, 수상 또는 외무·유럽장관에 의해 주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한 자문기관(organe

12)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et l'action internationale de la Ville de Paris: Exercices 2010 et suivants," (5 février 2019), p. 12.

13) 파리의 대외활동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paris.fr/pages/paris-a-l-international-2433>

14) 2018년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파리시청에서 이달고(Hidalgo) 파리시장과 환담을 가진 바 있다.

15)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30.

16) 파리시청 조직도. <https://www.paris.fr/pages/organigramme-de-la-ville-de-paris-2380>(검색일: 2020. 09.29)

consultatif)이면서<sup>17)</sup>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의제를 제안하는 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ode général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GCT 일명 지방자치법) L. 1115-6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CNCDE에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DAECT는 1983년 프랑스 수상의 지침으로 외무·유럽부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sup>18)</sup>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랑스 외교정책에 부합되는 활동을 펼치는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DAECT는 외무·유럽부의 세계화·문화·교육·국제개발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de l'enseignement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산하기관으로 그 임무는 훨씬 더 광범위해서 관련 연구사업 공고 및 지원지역 선정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sup>19)</sup> 더 나아가 DAECT는 CNCDE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중앙부처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이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되며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20)</sup>

그러나 파리시가 담당하고자 하는 대외영역에서의 독자적 활동은 중앙정부에 때로 위협적으로 비쳐진다. 2008년 4월 21일 파리 시의회(Le Conseil de Paris)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기로 한 안건을 가결시킨 사례는 당시 사르코지(Sarkozy) 정부의 입장과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좌파 사회당 소속 델라노에(Delanoë) 파리시장은 그의 측근들이 포진한 녹색당의 지지에 힘입어 중도우파인 사르코지 정부의 대중국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sup>21)</sup>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 시민권

17) Pierre Pougaud(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Guide juridique de l'action extérieu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9), p. 59.

18) 오창룡,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문화 분권화," in 김민정 외, 『프랑스 지방자치와 도시문화』 (서울: 도서출판 라움, 2017), pp. 75-77를 참조할 수 있음.

19) DAECT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action-exterieure-des-collectivites-territoriales/presentation-et-activites-de-la-cncd-et-de-la-daect/article/la-delegation-pour-l-action-exterieure-des-collectivites-territoriales-daect>

20)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Diplomatie et territoir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6), p. 26.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11.

21) Reuters, "China condemns Paris honour to Dalai Lama," Avril 22, 2008.

수여가 가결된 그 이튿날 라파랭(Raffarin) 프랑스 총리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국제문제에 관한 발언 시에는 국가의 외교 전략과 합치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As a responsible local official, when making comments on some international issues, he must maintain consensus with the state’s diplomatic strategy.)”<sup>22)</sup>라고 선언하였다. 라파랭 총리의 선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이 중앙정부와의 조율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파리시의 조치가 일회적 파격 행보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도시외교의 행위자가 중앙정부의 입장과 다른 독자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사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민국가의 지도력 공백을 채움으로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 하는 기능<sup>23)</sup>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는 이주현의 주장처럼<sup>24)</sup> 비록 영토와 관할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국가라는 행정적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체성 확장을 통해 적극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파리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세 분야(문화,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환경)에서 파리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펼치고 있는지 그 행보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파리시 도시외교의 특성 연구는 우리나라 선진 자치모델인 제주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례로 유용하다. 2002년부터 국제자유 도시를 추진한 제주도는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2006년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 도를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화합의 상징을 간직한 ‘세계 평화의 섬’이며 친환경 이미지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우수 정책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2004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에 가입하여 국제기구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https://fr.reuters.com/article/id/INIndia-33176320080422> (검색일: 2020. 10. 15)

22) China Daily, “Paris Mayor made ‘political mistake,’” April 24, 2008.

[https://www.chinadaily.com.cn/china/2008-04/24/content\\_6640044.htm](https://www.chinadaily.com.cn/china/2008-04/24/content_6640044.htm) (검색일: 2020. 10. 15)

23) Leffel and Acuto (2017), p. 9.

24) 이주현,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2호 (2019), pp. 183-208.

하였다. 제주도는 2014년 UCLG 문화분과 위원회 문화시범도시를 시작으로 2015년 국내에 유일한 문화선도 도시로 발전하였고 UCGL 아·태 지부 회장 도시로 4년 동안(2014-2018) 활동하였다.<sup>25)</sup> 제주도가 그동안 지속가능한 우수 도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의 도시와 다양한 협력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제주특별법 제 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제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문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파리시 연구는 제주도에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문화정책, 세계 선도하는 우수 정책 모델 제시,”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204285> (검색일: 2020. 11. 13)

## II. 국제적 행위자 파리

파트너 도시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매도시 체결은 도시외교의 시작점이다. 자매도시 체결은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외교무대에서 도시의 역할을 확장해준다. 도시의 국제무대 편입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한 라라(Lara)의 구분<sup>26)</sup>에 의하면 자매도시 체결은 도시외교의 첫 번째 단계다. 외적 투영(External projection)의 예로 양립외교(paradiplomacy)로서 자매결연(혹은 우호와 협력협약) 체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통외교처럼 국가의 주권적 권위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를 중점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파리는 로마와만 독점적 자매도시(jumelage exclusif) 협약을 체결하였다. “파리만이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로마만이 파리와 비교 가능하다 (Seule Paris est digne de Rome, seule Rome est digne de Paris)”<sup>27)</sup>는 기치 아래 두 도시는 1956년 1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파리는 2015년 9월까지 55개 도시와 우호협력협약(Pacte d'amitié et de coopération)을 맺었다. 파리가 맺은 첫 번째 우호협력협약 도시는 일본의 교토(1958)이며 두 번째는 동경(1982)<sup>28)</sup>이란 점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알 수 있다.<sup>29)</sup> 최근 파리지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2024년 올림픽

26) 라라는 국제무대에 도시가 편입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외적투영(External projection), 국제적 존재감(International presence), 지역매력도(Territorial attractiveness) 그리고 지구적 인정(Global recognition)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Lara Ray, “How are Cities Inserting Themselv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City Diplomacy*, in Sohaela Amiri and Efe Sevin, (Palgrave Macmillan, 2020), pp. 189-214.

27) Vivre Paris, “Le Saviez-vous ? Paris est jumelée avec une seule ville au monde !” (Mai 15 2019), <https://vivreparis.fr/le-savez-vous-paris-est-jumelee-avec-une-seule-ville-au-monde/> (검색일: 2020. 10. 1).

28) Mairie de Paris, “Les pactes d'amitié et de coopération,” (Septembre 2015), [www.api-site.paris.fr/images/74497](http://www.api-site.paris.fr/images/74497) (검색일: 2020. 10. 01)

29) 서울은 파리와 1991년에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파리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일곱 번째 도시에 해당된다.

개최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룬 쾌거다.<sup>30)</sup> 202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Paralympic Games) 개최도시로서 파리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2020년 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동경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sup>31)</sup> 올림픽을 매개로 두 도시 간 문화, 환경, 관광 그리고 스포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계도시 파리가 국제적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간 연합을 통한 국제적, 프랑스어권국가적, 유럽적 층위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파리시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UCLG<sup>32)</sup>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지방정부 국제기구인<sup>33)</sup> UCLG는 2004년 5월 파리 창설회의를 통해 출범했는데, 이는 일찍이 1913년부터 존재했던 도시국제연합(Union Internationale des Villes: UIV)<sup>34)</sup>을 근간으로 세계 도시연합연맹-도시연합기구(Fédération Mondiale des Cités Unies- World Federation United Towns Organisation FMCU-UTO)(1957)과 Metropolis (1985)를 통합함으로써 가능했다(아래의 <그림 1> 참조).

30)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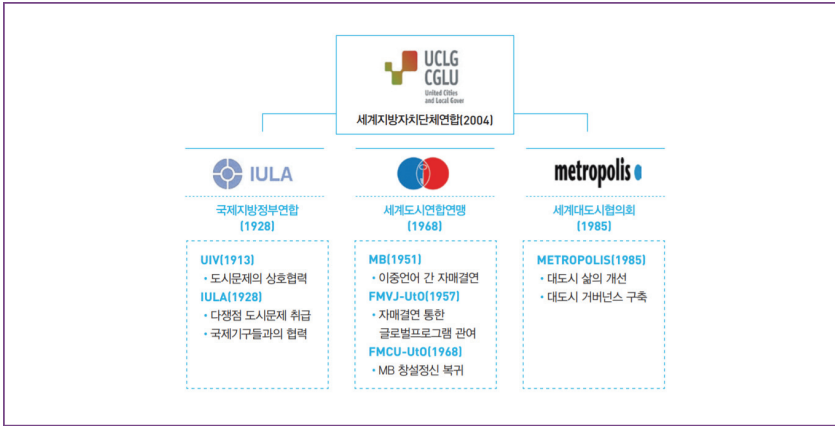
3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Olympic and Paralympic Cooperation, "Between the City of Paris and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www.metro.tokyo.lg.jp/english/topics/2018/documents/20181106.pdf> (검색일: 2020. 10. 10)

32) Cités et gouvernements locaux unis은 불어적 표기 방식이다.

33) 송기돈,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 특집 (2017), p. 57.

34) UIV는 1928년에 명칭을 국제지방정부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로 변경하였다.

그림 1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출처: 송기돈,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 특집 (2017), p. 58.

UIV의 발전 단계에서 이정표를 세운 회의로는 겐트(Ghent, 1913), 파리(1925) 그리고 베를린(1936) 회의를 꼽을 수 있는데, 파리는 UIV가 1차 대전 이후에 재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35)</sup> FMCU-UTO의 모태인 이중언어 세계(Le Monde Bilingue)는 공통 언어 사용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1951년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브레쌍(Bressand)과 폴랭(Poulain)에 의해서 구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 간 교류차원에서만 성과를 거뒀다. 이는 초등교육을 관할하는 시차원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으며 언어가 다른 도시와의 이중언어 자매결연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36)</sup> 1985년도에 설립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세계대도시협의회로 파리와 서울 등을 포함하여 현재 120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35) Renaud Payre & Pierre-Yves Saunier, “Municipalités de tous pays, unissez vous! L'Union Internationale des Villes ou l'Internationale municipale(1913-1940),” *Amministrare*, Vol. 30, No. 1-2 (2000) pp. 219-220.

36) Antoine Vion, “L'invention de la tradition des jumelages(1951-1956): Mobilisations pour un droit,”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53 (2003/4), pp. 567-569.

파리시의 가장 중요한 국제무대는 프랑스어권 국가들과의 모임이다. 국제프랑코포니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Francophonie: OIF) 산하 국제프랑코어권시장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Maires Francophones: AIMF)는 시라크(Chirac) 당시 파리시장과 펠르티에(Pelletier) 퀘벡 시장의 제안으로 1979년도에 설립되었다. AIMF의 초대 의장은 시라크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AIMF의 의장직은 파리시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AIMF의 의장직을 파리시장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파리시가 AIMF 재정의 상당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6년 파리시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29%가 프랑코포니 국가 지원에 충당된다는 것(아래 <그림 2> 참조)은 파리가 AIMF를 얼마나 중요한 활동무대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300여 도시가 참여하는 AIMF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IMF가 재정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갖고 도움을 주는 분야는 거버넌스 전반(지역재정, 민간사회, 도시화, 시민을 위한 서비스 등), 도시발전(물, 정화, 유산, 공공장비), 국민봉사(창업지원 등) 등 다양한 분야다.<sup>37)</sup>

1986년도에 조직된 유로씨티(Eurocities)는 39개 국가의 190여 유럽도시 연합<sup>38)</sup>으로 파리시는 1992년도에 회원이 된다. 유로씨티는 위기 시 지역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도모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는 기후변화, 사회 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외교를 통한 ‘세방화(glocal)’의 순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유로씨티의 노력은 EU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수많은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이동을 목표로 한 유로씨티 유럽이동주간(European Mobility Week)은 2020년 올해로 19번째로 파리에서는 9월 22일 오전 11부터 오후 6시까지 파리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했다.<sup>39)</sup> 파리시는 지속가능한 이동 방법을 경험하는 캠페인인 유럽이동주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7) Pougau (2020), p. 33.

38) <https://eurocities.eu/about-us/> (검색일: 2020. 10. 12).

39) Urban Transport Magazine, "European Mobility Week 2020: promoting zero-emission mobility for all," <https://www.urban-transport-magazine.com/en/european-mobility-week-2020-promoting-zero-emission-mobility-for-all/> (검색일: 2020. 10. 12).

### III. 문화수도 파리의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

문화대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이다. 르네상스 시절 선진 문화국가인 이탈리아로부터의 문화적 수입에 적극적이었으며, 예술가들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프랑수아 1(François 1)세부터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한 루이 13세,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를 창설한 루이 14세(Louis 14) 등 프랑스의 절대왕정의 군주들은 문화를 강화된 왕권을 홍보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제 이래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 동안 프랑스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형(dirigiste) 문화예술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프랑스가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프랑스는 문화가 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1870년~1880년에 문화외교를 고안한다.<sup>40)</sup> 프랑스가 전간기에 체코슬로바키아에 펼친 문화정책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프랑스문화원, 프랑스학교,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연결망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친프랑스적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sup>41)</sup>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화외교를 통해 이들 나라가 프랑스에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힘썼다. 쇼베(Chaubet)에 의하면 문화외교가 절정일 때는 프랑스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기로 문화를 방패삼아 힘의 약화를 만회하려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를 결사적으로 지켜낸 것은 이러한 프랑스의 전략적인 무기인 문화가 미국의 할리우드적 문화에 의해 무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40) François Chaubet, “Role et enjeux de l’influence culturelle dan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 Vol. 1 (2013), p. 95.

41) *Ibid.* 97.

지방분권화 경향속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면서, 이제는 도시로서의 파리가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주체적 외교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파리시는 ‘국립기관’들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수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박물관 뿐 아니라 70여 개의 도서관, 17개의 예술학교 그리고 샤횀레(Châtelet) 극장을 포함한 백여 개의 시립문화복합 공간을 갖춘 프랑스의 그리고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문화수도(Capitale culturelle)’임을 자임한다. 도시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기 전에는 파리의 이와 같은 문화적 자산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문화외교적 행위자로서의 파리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 시절 루브르(Louvre) 박물관 개축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및 도시계획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Grands Travaux)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파리에 대규모 현대 건축물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21세기에도 문화 예술 세계 수도로서의 파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위대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파리시의 역할도 상당하였지만 아직 도시정부의 역할이 주목받지 않은 시기였기에, 당시 미테랑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시라크 파리시장의 역할 보다는 미테랑 대통령의 예술적 안목과 미래지향적 비전의 결과물로 이 사업은 평가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도시정부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면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수립(réaffirme des cultures, dans un souci d'ouverture à tous les publics et (...) au service de la diversité culturelle”<sup>42)</sup>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수도 파리의 대외 문화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파리시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완적이면 동시에 자체적인 문화 기획으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파리시가 2002년부터 시행한 ‘라 뉘 블랑슈(하얀 밤, La nuit blanche)’ 축제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열리는 축제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시설 무료개방으로 구성된다. 라 뉘 블랑슈 축제는 밤에만 볼 수 있는 특별공연이나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문화행사를 새벽까지 즐길 수 있게 구성함으로 시민들에게 파리시의 다양한 문화 공연 예술을 또 다른

42) L'action internationale de la Ville de Paris, <http://paris.fr/pages/paris-a-l-international-2433> (검색일: 2020. 09. 15).

차원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뤼셀, 교토, 멜버른, 대만, 멕시코, 몬트리올 등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파리지의 자문을 받아 라 뉘 블랑슈 컨셉을 받아들여 유사한 축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파리 플라주(Paris plages)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2002년부터로, 파리 플라주는 이후 매해 여름 한 달 동안 파리 센느(Seine)강 주변을 해변으로 변신시켜 도심에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의 성격을 넘어, 사회문제의 해결방식과 연결된다. 바캉스를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특별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파리 시민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사회당 들라노에 시장은 모든 사람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연대 정신에 따라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파리 시민을 위해 파리 플라주를 구상한 것이다.<sup>43)</sup> 파리 플라주는 문화정책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을 위한(à tous les publics)’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프랑스내 여타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 몬트리올, 브뤼셀 등의 해외 도시들이 파리 플라주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서비스를 해당 도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들라노에 파리지장에 이어 2014년에 당선된 사회당 출신 여성 최초 파리지장인 이달고(Hidalgo)는 2018년 5월 시의회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예술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배제됨 없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종, 성별, 경제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파리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로 파리지가 난민네트워크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ies of Refuge Network: ICORN)에 보이는 적극적인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CORN은 창조적인 창작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박해받는 작가와 예술가를 위해 장기 또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70여 개가 넘는 도시들로 구성된다. ICORN의 공식멤버는 파리지 이외에 예술가 기숙사, 파리 도서관, 국경 없는 기자 그리고 신문기자들의 모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이 ICORN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3) Qu'est-ce que Paris Plages?

<https://www.sortiraparis.com/loisirs/articles/9907-qu-est-ce-que-paris-plages> (검색일: 2020. 09. 25)

## IV. 국제연대를 위한 파리시의 지원

파리시의 대외사업에서 예산 파악이 가장 용이한 분야는 개발원조다.<sup>44)</sup> 지방자치법(CGCT) L. 1115-6에 의하면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을 책정해서 외무·유럽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합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예산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출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보여준다.<sup>45)</sup> 프랑스는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 대비 0.7%를 넘지 않는 많은 나라중 하나다.<sup>46)</sup> 중앙정부는 유엔이 설정한 ODA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ODA에 지원하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의 노력을 상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ODA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활동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파리시가 지원한 ODA 예산은 6,316,249유로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13.1%를<sup>47)</sup>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sup>48)</sup>은 주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를 포함한 프랑코포니 지역을 중심 수혜대상으로 한다.

44) 지역회계법원(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은 2019년 보고서를 통해 파리시의 대외활동 집행 예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개발원조를 제외한 파리시의 대외사업 관련 예산은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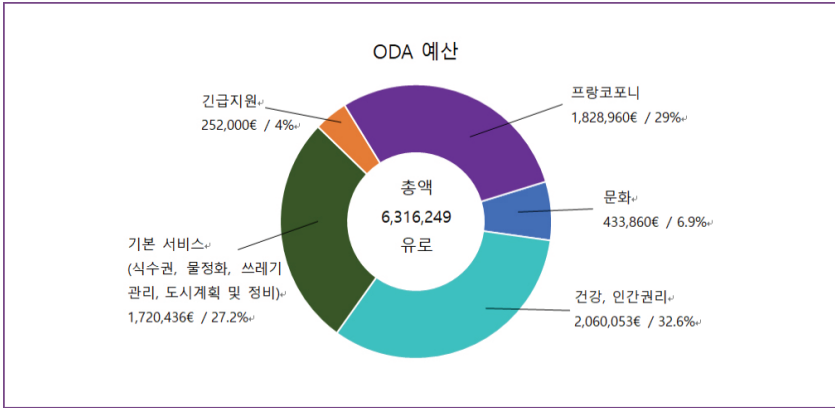
45) Pougau (2020), p. 13.

46) 0.7%를 넘어서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뿐이며 2014년 프랑스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6%다.

47)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35.

48) 김민정,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in 김민정 외, 『프랑스 지방자치와 도시문화』 (서울: 도서출판 라움, 2017), pp. 101-131를 참조할 수 있음. 특히 102-103쪽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2016년 파리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출처: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39

파리의 공적개발원조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식수를 포함한 위생 확보, 문화 그리고 긴급지원<sup>49)</sup>으로 나뉘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sup>50)</sup>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인권권리 항목은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추방당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위험에 빠진 인권운동가의 보호, LGBTIQI 보호 등과 같은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의 가장 대표적 사업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원조로 이는 2030년 에이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보건 의제와 맞닿아 있다. 건강 항목의 우선 순위로 에이즈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파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9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3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에이즈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여성 환자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sup>51)</sup> 2014년

49) 긴급지원은 협회나 재단의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2016년 12월 적십자사를 통해 이라크 난민캠프에 물 지원사업이 그 예다.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33.

50) 파리는 ODA를 지원할 지역과 우선순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사업과 지원국가 선정의 경우 CNCDC와의 조율하에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51) Paris renouvelle son engagement contre le VIH/Sida à l'international, <https://www.paris.fr/pages/paris-renouvelle-son-engagement-contre-le-vih-sida-a-l-international-7022>

12월 1일에는 이달고 파리시장과 유엔에이즈(UNAIDS) 집행위원장인 시디베(Sidibé)의 공동주관으로 모인 세계시장모임에서 에이즈 퇴치 행동 강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을 선포하기도 하였다.<sup>52)</sup> 파리의 에이즈 퇴치사업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 다른 대륙까지 지원을 확장하였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밖 지원으로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그리고 아이티를 꼽을 수 있다.<sup>53)</sup>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수질개선 노력은 파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면서 SDG의 21개의 세부목표 중 여섯 번째인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세계적인 물 관리 및 폐기물 관리 회사인 베올리아(Véolia)<sup>54)</sup>와 수에즈(Suez)가 모두 프랑스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전문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우앵-쌍티니 법(loi Oudin-Santini)은 지방정부의 물 및 물 정화관련 예산의 1%를 물 부족 지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공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sup>55)</sup> 2017년까지 우앵-쌍티니 법에 의해 1%의 연대의식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82개로 프랑스의 전체 35,500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도 하다.<sup>56)</sup> 그러나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파리는 남미 카리브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지역에 걸쳐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7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는 800만 유로에 해당되는 재정지원으로 150만 명에게 혜택을 줬다.

52)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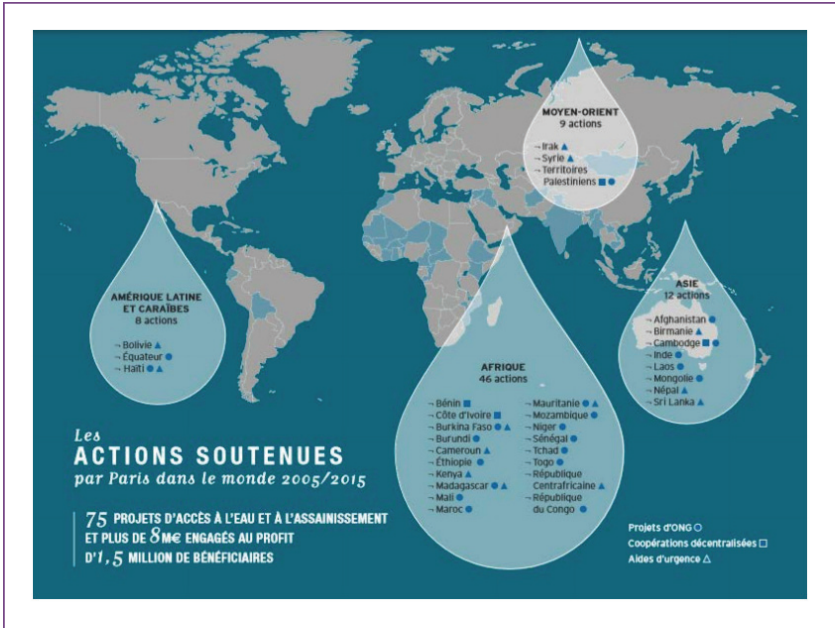
53) Paris renouvelle son engagement contre le VIH/Sida à l'international, <https://www.paris.fr/pages/paris-renouvelle-son-engagement-contre-le-vih-sida-a-l-international-7022> (검색일: 2020. 09. 29).

54) 베올리아 재단은 AIMEF 지역을 지원한다. 그 예로 2014년에는 13,000유로, 2016년에는 140,000유로를 AIMEF에 지원하였다.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16.

55) “1% 연대의식”은 2014년 7월 7일 기본방향에 관한 법(La loi d'orientation)에 의해 물 문제에서 쓰레기 처리 및 관리(gestion des déchets) 분야로 확장되었다. 파리는 파리시 쓰레기 처리 예산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을 빈곤국에 지원한 첫 번째 지방정부다.

56) Solidarités 40, “La loi Oudin-Santini,” <https://www.solidarites.org/fr/agir/collectivites-etablisements-publics-partenaires/loi-oudin-santini-collectivites-eau-assainissement/> (검색일: 2020. 09. 29).

그림 3 물과 물 정화 관련 파리의 지원 (2005-2015)



출처: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2019), p. 33.

하지만 2016년 기준 세계 인구의 50%가 물을 구하기 어렵고 2025년에는 물 부족을 겪는 세계 인구가 63%로 증가하여 위생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57)</sup> 파리를 포함하여 기술력과 재원이 있는 선진지역에서 물 빈곤국에 지원해야 할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57) Ibid.

## V. 파리협정과 환경외교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21)의 결과물로 나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파리가 보여주는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을 가장 가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UNFCCC)의 21번째 당사국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성공적으로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의 제 7조 2항과 11조 2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2월 4일 파리 당사국총회와 같은 날에 개최된 “1000 시장(1000 maires)” 모임은 이달고 파리시장과 전 뉴욕시장이며 UN 도시 및 기후 특사인 블룸버그가 조직하였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700여 명의 시장과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 그리고 아놀드 슈와르츠네거(Arnold Schwarzenegger) 등과 같은 유명연예인(정치인)이 함께 참여한 이 모임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파리시청에서 개최된 시장모임에 참여한 올랑드(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지역행위자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구온난화 방지 움직임은 있을 수 없다(Il n'y aura véritablement d'action contre le réchauffement que s'il y a action des acteurs locaux)”<sup>58)</sup>고 시 차원의 행동을 독려한 바 있다. 실제로 급격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50%(2050년에 들어서면 3분의 2)가 도시에서 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8) Laetitia van Eeckhout, “COP21: 700 maires du monde réunis à Paris pour exercer ‘une pression positive’,” *Le Monde*, (4 décembre 2015).

[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15/12/04/cop21-un-millier-de-maires-et-d-elus-locaux-venus-du-monde-entier-et-reunis-a-paris\\_4824018\\_3244.html](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15/12/04/cop21-un-millier-de-maires-et-d-elus-locaux-venus-du-monde-entier-et-reunis-a-paris_4824018_3244.html) (검색일: 2020. 10. 20)

70%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 차원의 해결책 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프랑스 공공보건국은 수도권 지역의 젊은 층 사망 6,600건은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sup>59)</sup>

파리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여주는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2020년 말까지 배기가스 저방출지역(Zone à faibles émissions: ZFE)<sup>60)</sup>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후 차량의 도심지 운영을 제한하고 저탄소 및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배기가스 저방출 지역에서는 크리테르(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부착과 함께 일정 등급 이하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는 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부착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반해 파리시는 2017년 1월부터 평일 주간동안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일반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sup>61)</sup> 또한 파리시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4년에는 디젤차량의 도심운행을 중단하고 2030년부터는 화석연료차량 진입 금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파리시는 대체 교통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 확충(Plan Vélo와 Plan Piéton)에 힘쓰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 구매 지원 등 청정 및 공유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된 벨리브(vélib)<sup>62)</sup>는 2015년부터 운행된 서울시의 '파랑이'에도 영향을 미친 가장 대표적인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다. 벨리브에 앞서 프랑스의 리옹(Lyon), 렌(Rennes),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등 지방 도시나 코펜하겐 등이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자전거를 공영 대중교통 서비스로 제공한 정책은 처음이다. 이처럼 파리가 친환경 정책의 모범도시가 된 것은 이달고의 영향이 크다. 2014년에 당선된 이달고는 2020년 6월에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녹색당과의 연대가 재선 성공

59) Métropole du Grand Paris, "Zone faibles émissions Métropolitaine,"

<https://www.metropolegrandparis.fr/fr/zone-faibles-emissions-metropolitaine-190> (검색일: 2020. 09. 20)

60) 현재 ZFE 프로젝트에는 유럽의 231개의 주요도시와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61) 대한민국 도시사협의회, "파리시내 운행 모던 차량, 공해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시·도 뉴스레터』 (2017 2월), <http://www.gaok.or.kr/webzine/201702/sub05.html> (검색일: 2020 10. 25)

62) 벨리브는 프랑스어로 '자전거'를 뜻하는 벨로(vélo)와 '자유'를 뜻하는 리베르테(liberté), 두 단어를 합쳐 줄인 말이다.

요인 중 하나였다.<sup>63)</sup> 2014년 이후 조성한 양방향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리지 통행이 제한될 동안 이달고는 31마일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코로나 길(coronapistes)”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하였다.

2020년 2월 시장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된 “15분 도시(*ville du quart d'heure*)”<sup>64)</sup>는 이달고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파리지 사업이다. 파리지민은 파리 어디에 거주하든 15분 안에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 귀가 시간을 줄이고 각 구(*arrondissement*)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의료, 운동 시설, 가게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sup>65)</sup>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 구축은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공해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이 커진 코로나 시대에 더욱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안이다. 파리시가 구상하는 미래사회가 중세시대의 마을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미래사회가 신기술의 범람으로 삶이 기계화되고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놓여 종종 위협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면 파리시의 “15분 도시”는 미래도시를 기다리게 한다.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삶이 살아 있는 미래도시를 꿈꾸게 하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파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63) Vivienne Walt, “We heard Birds.’ Paris Mayor Anne Hidalgo on How Lockdown Offered a Glimpse at a Greener City,” *The Time*, (July 9, 2020). <https://time.com/5864707/paris-green-city-2/> (검색일: 2020 10. 05)

64) *The guardian*, February 7, 202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7/paris-mayor-unveils-15-minute-city-plan-in-re-election-campaign> (검색일: 2020 10. 05)

65) 서울연구원, “프랑스 파리지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세계도시동향』, No. 478 (2020년 6월 18일).

## VI. 결론

문화외교에 있어 독보적인 행위자 파리는 중앙정부와 유엔차원의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 도시이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갖춘 리더 도시이기도 하다. 세계도시 파리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때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최근 Covid-19의 상황속에서 국제 공조의 틀에서 시 차원의 대응이 눈에 띈다. 2020년 3월 29일 개최된 파리와 서울을 포함한 세계 30개 국가의 45명의 시장 간 화상회의는 주요 도시들이 코로나 19 위기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sup>66)</sup> 또한 4월 20일에는 파리,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그리고 밀라노 시장이 Covid-19으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 유럽연합이 긴축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유럽연합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유럽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대감과 협력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시 차원에서 유럽연합에게 요구한 것이다.<sup>67)</sup>

그러나 여전히 시 차원의 정책이 국가적 틀로 확대되거나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파리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테러와의 전쟁을 꼽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파리시가 독자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신문사의 테러와 같은 해 11월 파리의 경기장, 콘서트홀, 식당에서의 테러는 파리시민 모두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영국이 1998년 입안된 범죄와 공공질서 파괴법(Crime and Disorder Act)<sup>68)</sup>에

66) C40 cities, "45 mayors & city leaders from 30 countries share knowledge and advice on tackling COVID-19 crisis," Press release, London, (27 March 2020).

67) Global Parliament of Mayors, "Joint letter Mayor Amsterdam, Barcelona, Paris and Milan to ask for no austerity as way out of Covid-19 crisis,"

<https://globalparliamentofmayors.org/joint-letter-mayors-amsterdam-barcelona-paris-and-milan-to-ask-for-no-austerity-as-way-out-of-covid-19-crisis/> (검색일: 2020. 10. 5)

의해 지방정부에도 테러와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것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테러 근절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제도, 법률, 재정)이 여전히 부재하다.<sup>69)</sup> 파리시는 테러 근절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공안보, 대규모 집회 시 질서유지, 공중위생 유지, 화재, 홍수, 사고 시 구조 의무가 시장에게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리시가 효과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리시는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에 가까이 있고 보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파리시민의 필요 및 안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8) 이 법은 2001년도에 반테러 범죄와 안보 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으로 개정됨.

69) Remi Baudoui, "La vulnérabilité des villes au terrorisme. Les dilemmes de l'action publique," *Les Annales de la recherche urbaine*, No. 110 (2015), pp. 122-123.

## 참고문헌

- 김민정.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in 김민정 외, 『프랑스 지방자치와 도시문화』 (서울: 도서출판 라움, 2017), pp. 101-131.
- 대한민국 도시사협의회. “파리시내 운행 모든 차량, 공해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시·도 뉴스레터』 (2017 2월). <http://www.gaok.or.kr/webzine/201702/sub05.html> (검색일: 2020 10. 25).
- 서울연구원. “프랑스 파리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세계도시동향』, No. 478 (2020년 6월 18일).
- 송기돈.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 특집 (2017), pp. 54-67.
- 이주현.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2019, pp. 183-208.
- 오창룡.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문화 분권화.” in 김민정 외, 『프랑스 지방자치와 도시문화』 (서울: 도서출판 라움, 2017), pp. 71-100.
- 전훈.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문화정책, 세계 선도하는 우수 정책 모델 제시.”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204285> (검색일: 2020. 11. 13).
- Baudouin, Remi. “La vulnérabilité des villes au terrorisme. Les dilemmes de l'action publique.” *Les Annales de la recherche urbaine*, No. 110 (2015), pp. 118-127.
- C40 cities. “45 mayors & city leaders from 30 countries share knowledge and advice on tackling COVID-19 crisis.” Press release, London, (27 March 2020).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1 (Oxford: Blackwell, 1996).
-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et l'action internationale de la Ville de Paris: Exercices 2010 et suivants.” (5 février 2019).

- Chaubet, François. "Role et enjeux de l'influence culturelle dan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 Vol. 1 (2013), pp. 93-101.
- China Daily, "Paris Mayor made 'political mistake.'" April 24, 2008.  
[https://www.chinadaily.com.cn/china/2008-04/24/content\\_6640044.htm](https://www.chinadaily.com.cn/china/2008-04/24/content_6640044.htm)  
 (검색일: 2020. 10. 15).
- Edwards, Arthur and Hupe, Peter. "France: a Strong State, Towards a Stronger Local Democracy?" in H. Daemen & L. Schaap. *Citizen and City. Developments in fifteen local democracies in Europe* (Delft: Eburon, 2000) pp. 129-144.
- Global Parliament of Mayors. "Joint letter Mayor Amsterdam, Barcelona, Paris and Milan to ask for no austerity as way out of Covid-19 crisis."  
<https://globalparliamentofmayors.org/joint-letter-mayors-amsterdam-barcelona-paris-and-milan-to-ask-for-no-austerity-as-way-out-of-covid-19-crisis/>  
 (검색일: 2020. 10. 5).
- Hall, Peter. *The World Cities*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66).
- Herschel, Tassilo and Newman, Peter. *Cities as International Actors* (Palgrave Macmillan, 2017).
- Lara, Ray. "How are Cities Inserting Themselv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City Diplomacy*, in Sohaela Amiri and Efe Sevin, (Palgrave Macmillan, 2020), pp. 189-214.
- Métropole du Grand Paris. "Zone faibles émissions Métropolitaine."  
<https://www.metropolegrandparis.fr/fr/zone-faibles-emissions-metropolitaine-190> (검색일: 2020. 09. 20).
-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Diplomatie et territoir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6).
- Leffel, Benjamin and Acuto, Michele. "City Diplomacy in the age of Brexit and Trump." *Public Diplomacy*, Vol. 18 (2017), pp. 9-14.

- Mairie de Paris. “Les pactes d’amitié et de coopération.” (Septembre 2015).  
[www.api-site.paris.fr/images/74497](http://www.api-site.paris.fr/images/74497) (검색일: 2020. 10.01).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Olympic and Paralympic. “Cooperation Between the City of Paris and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www.metro.tokyo.lg.jp/english/topics/2018/documents/20181106.pdf>.
- Payre, Renaux & Saunier, Pierre-Yves. “Municipalités de tous pays, unissez vous! L’Union Internationale des Villes ou l’Internationale municipale(1913-1940).”  
*Amministrazione*, Vol. 30, No. 1-2 (2000), pp. 217-239.
- Pougaud, Pierre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Guide juridique de l’action extérieu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9).
- Pougaud, Pierre. “Guide opérationnel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2020).
- Reuters, “China condemns Paris honour to Dalai Lama,” Avril 22, 2008.  
<https://fr.reuters.com/article/idINIndia-33176320080422> (검색일: 2020. 10. 15).
-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Local Actors in Global Politics.” *Current Sociology*, vol. 52. No. 4 (July 2004), pp. 649-670.
- Solidarités 40. “La loi Oudin-Santini.”  
<https://www.solidarites.org/fr/agir/collectivites-etablissements-publics-partenaires/loi-oudin-santini-collectivites-eau-assainissement/> (검색일: 2020. 09. 29).
- Urban Transport Magazine. “European Mobility Week 2020: promoting zero-emission mobility for all.”  
<https://www.urban-transport-magazine.com/en/european-mobility-week-2020-promoting-zero-emission-mobility-for-all/> (검색일: 2020. 10. 12).

- Van der Pluijm, Rogier and Melissen, Jan.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2007).
- Van Eeckhout, Laetitia. “COP21: 700 maires du monde réunis à Paris pour exercer ‘une pression positive’.” *Le Monde* (4 décembre 2015).  
[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15/12/04/cop21-un-millier-de-maires-et-d-elus-locaux-venus-du-monde-entier-et-reunis-a-paris\\_4824018\\_3244.html](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15/12/04/cop21-un-millier-de-maires-et-d-elus-locaux-venus-du-monde-entier-et-reunis-a-paris_4824018_3244.html) (검색일: 2020. 10. 20).
- Vion, Antoine. “L’invention de la tradition des jumelages(1951-1956): Mobilisations pour un droit.”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53 (2003/4), pp. 559-582.
- Vivre Paris. “Le Saviez-vous ? Paris est jumelée avec une seule ville au monde !” (Mai 2019).  
<https://vivreparis.fr/le-saviez-vous-paris-est-jumelee-avec-une-seule-ville-au-monde/> (검색일: 2020. 10. 1).
- Walt, Vivienne. “‘We heard Birds.’ Paris Mayor Anne Hidalgo on How Lockdown Offered a Glimpse at a Greener City.” *The Time* (July 9, 2020).  
<https://time.com/5864707/paris-green-city-2/> (검색일: 2020 10. 05).

## 저자약력

---

### **박선희**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유럽학고등연구소(IHEE)의 유럽현대사 박사준비과정(D.E.A)을 마치고 Paris 8대학 유럽학 연구소(IE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빙학자를 거쳐 현재는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로는 프랑스 사회의 다문화 도전, 유럽연합의 난민정책과 문화정책 등이다. 공저서로는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2019), 「유럽정치론」(2018) 등이, 논문으로는 "Taking cultural goods serious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Re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Korea-EU FTA"(2020),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2019) 등이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과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파리의 도시외교

세계도시 파리의  
도시외교 특성 연구

